

## 오륙도 칼럼



김숙정

교육도시 부산 남구가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2007년 남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로 시작된 교육도시 만들기 남구의 노력은 해를 더할수록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마침내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

약하는 교육도시 남구로서 미래지향적인 교육공동체의 비전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오랫동안의 노력과 그 결실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는 남구, 서구, 사하구, 금정구가 각각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한꺼번에 지정 받게 되어 대박을 터트렸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얼핏 보면 이미 전국의 여러 시·군·구가 지정되어 왔고 부산에서도 이미 몇 개구가 지정된 평생학습도시가 무슨 큰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내심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구가 오늘의 평

## 평생학습도시로 크나큰 남구 소망

생학습도시 지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노력과 과정을 살펴본다면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벨트(Reg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 정책의 지역모델 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남구의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다섯 개의 특성화 대학과 5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16개의 지역아동센터, 19개의 주민자치회를 묶는 그야 말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정책모델로서 자리 매김하였고, 20여의 국고지원을 이끌어 내었, 정책의 실효성을 이룩했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의 시·군·구관계자가 방문할 만큼 높은 명성을 얻었고, 2012년에 우수상을 이어서 받는 영

광을 안았다.

남구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부터 지역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고안,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적성 교육은 물론 우리고장 바로알고 사랑하기를 체득시켰으며,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초·중학교의 사서도우미 지원 사업,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은 교사들의 관련 업무 경감을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의 시·군·구관계자가 방문할 만큼 높은 명성을 얻었고, 최근에는 세종시의 35개 초·중·고

관리자 및 교사들이 직접 남구청을 방문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도시 만들기를 벤치마킹 해 갈 정도로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위의 노력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 남구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특별히 단기간의 보여주기 식 행정에 얻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노력하면서 여러 학생조차도 소중한 한 명의 지역주민으로 여기는 섬김의 리더십 행정이 보여준 결과이다.

선전에 이어 남다른 교육행정 철학을 지니고 있는 이종철 구청장이하 남구청 행정 가족들의 신념에 찬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남구의회 의원들의 하나된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부경대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있었으며, 특히,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인내와 희생도 감내해 내어야만 했다.

이제 남구의 평생학습도시라는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구의 지역주민들은 더 큰 기대와 열정으로 교육과 학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교육 문화도시 남구를 꿈꾸며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늘 함께 애태우고 노력이나마 힘을 더하고자 한 본인 또한 그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도시를 소망하며 더 큰 남구를 기대해 본다.

수인초등학교장  
전 교육부 교육과정기획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신선대

&lt;210&gt;

채 규홍



고 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최영지(문원2동)



선용의

1000자 지혜

110

## 순서와 이치

동언해(東言解)에 수망침요계 용호(難忙針腰繫用乎)란 말이 나온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때에 쓰겠는냐는 뜻인데, 무슨 일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

급하다고 일을 서두르다 보면 처음에는 잘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물론 일의 순서를 잘 알고 완벽한 준비를 갖춘 숙달된 장인이 잘 아는 사람이 이 시간이 급해 속도를 내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럴 지도 않은 사람이 장인의 흉내를 낸 다든지 또는 욕심을 부려 할 경우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송(宋)나라에 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는데 때가 되어 논을 갈고 모를 심었다. 며칠 뒤, 농부는 논에서 보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하다. 다른 집의 모는 키가 큰데 왜 우리 집의 모는 키도 작고 부실하게 자라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농부는 무심코 모를 잡고 조금 잡아당겨 보았다. 그랬더니 모의

키가 다른 집 것과 비슷했다. 농부는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내가 그걸 몰랐군! 모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어야겠다.”

농부는 신이나 모를 모두 조금씩 뽑아올려주었다. 그리고 웃고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에게 말했다.

“하루종일 모가 빨리 자라도록 도와주었더니 벌써 피로하구려.” 식구들은 농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가 빨리 자라도록 도와주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내 말 들을 것 없이 가서보면 다 알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날이 밝자마자 논으로 달려가 보고는 눈두렁에 뚫켜져 있다가 땅을 쳤다. 아니나 다를까 모가 이미 하얗게 말라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의 순서의 이치를 모르고 한 행동이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만 것이다.

농사일뿐 만이 아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순리대로 해나가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수 있을 것이다.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부산외대 완전이전 반대

남구의 명문대학으로 오랫동안 남구와 인연을 맺었던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내년 남산동 이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 59년 남구의 대표적 기업 체였던 성장환관이 세운 성지학원으로 출발한 외대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글로벌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배움의 전당으로 남구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1997년에 ‘국제 전문인력 양성 국제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최고의 외국어 교육과 지역학 연구기관으로서의

남구의 자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외대가 우리 남구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 부족한 캠퍼스 부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 한다고는 하지만 못내 아쉬운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아예 이전을 막는 움직임은 왜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행정당국은 물론 지역 정치, 주민 등이 한번쯤은 잡아 봤으리라 짐작되지만 눈에 띄게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못내 아쉽다. 대학 사정으로 이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는 대학 유치를 위해 사활

### ■ 독자의詩

### 작두콩

꽃들은 계절보다 먼저  
표지처럼 꽃봉오리 매달고  
신토불 기다만다  
며모르는 태양에  
일제히 제 몸 활짝 열거렸고  
길은 낸다  
꽃봉오리가 밝혀놓은 길을 따라  
노랗게 여불이 왔다  
꽃잎이 떨어 놓은 길을 따라  
불타는 여불이 왔다  
여름은 그 길 위에

성큼성큼 발자국을 남긴다  
  
작두콩 줄기가  
한사코 벽을 타고 오른다  
줄기마다 작은 보라색 꽃망울을  
매달고  
작은 꽃잎을 더욱 조이며 생김을  
만든다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여름  
그 안간힘의 등을 떠밀며 태풍이  
불려왔다

류진아  
(시인·기자)

작두콩 꽃은 제 안의 큰 길을 숨기고 몸을 움츠린다  
태풍이 갇힘으로 울려가길 바라며  
작두콩은 한사코 생김을 연다  
작은 꽃을 남는다

축하였지만 동백꽃이 울창한 동백곳에 20cm급 포를 설치하면서 곡사포는 철거 하였다.

용호동 구남의 포진지에는 장거리 통신으로 쓰시마(豊島)간 불빛통신과 화려한 비둘기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전서구(傳書鳩 Homing pigeon 훈련시킨 비둘기)로 인해 사령부와 쓰시마 토요 포대 간 운용통신 연락망을 운영하였다.

일본해군의 전함 카가와 아카기의 주포를 육군이 협공으로 구입하여 육상에 움직이지 않는 군함을 운용하고 장자등 큰 고개 위에 70mm(나나까 7處)고사포4문으로 대공을 감시하는 완벽한 군사기지를 갖추었다. 그러나 일본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일본이 신으로 믿은 천황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한 전쟁은 천황의 항복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한반도 전역으로 공급하는 구남의 화약고에서 제조한 포탄은 이 땅의 주인을 내쫓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남시편을 실어다 나르는 선착장이 일본군의 군사부두로 레일을 깔고 수 많은 군수품이 나뉘는 곳이었지만, 부두는1959년9월17일 사라(Sarah)호 태풍으로 파손 유실되었다.

410mm(18.5m 108ton)포의 운명은 일본이 패망하자 1945년10월 미군이 진주하여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시켰다. 쓰시마 토요포대(豊島砲臺)의 포신두께는 미군 갑옷 하에 1945년 10월에 철거하여 아하타(八幡) 제철소로 옮겨 전후 경제부흥의 재료로 활용하도록 특혜를 베풀었다고 한다.

이키섬 뒤편 사이카이(相崎)섬 북단 쿠로사기(黒島)포대에 설치하였던 410mm포는 히로시마현(廣島縣)구레시(呉市) 해상 자위대 연병장에 전시하고 있다.

용호동 탑금 포대 쓰시마 토요포대도 미군이 일부 폭파하였으나 1984년12월에 복원하여 관광 상품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한다.

용호동 장자등 해수표와 구남포진지도 고철 수집으로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복원하여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일부라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독도를 넘보는 그들의 속내를 가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싶다.

우리는 속으면서도 이웃사촌에 후한 민초이었다. 그들이 새로운 항복문서를 읽는 연습을 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한그루의 동백나무도 없는 동백꽃에도 동백나무를 심어 선조들이 아끼고 사랑한 부산항의 명물로 거듭 태어나는 기쁨을 나누는 노력이 절실하다.

남구 향토사 연구위원

### ■ 나의 생각

### 도시 재생특별법 제정과 부산의 과제



이덕식

부산시는 2009년부터 원도심의 쇠퇴와 빠른 슬럼화에 대비해 사업성이 낮은 정비(예정)구역의 재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대신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에서 주민이 참여해 점진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에 맞춰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통과 시켰다.

이 법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재생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산시의 도시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도시경비사업의 하나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수익성, 구성원 간의 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형편에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고층의 공동주택 위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경관을

비뚤한 교통이나 환경과 관련된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최근 구역지정 해제 움직임과 도심의 슬럼화 노령화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입법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은 또 정착주민이 참여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담고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앞장서 인건비가 살아 숨 쉬고 역사가 흐르는 도시를 창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문현금융단지과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도시 경제 기반형’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을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같은 ‘근린재생형’ 등 크게 두 가지 나누고 있다.

아무튼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산시는 제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본다.

부산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그동안 침체된 부산의 도심이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은 물론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가급적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부산시의 지자체는 지금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도심의 활력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지역 전문가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협력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재)나라정책개발원 원장

### ■ 재미있는 남구 이야기

### 비룡산의 동백꽃



왕정문

백운(白雲)이 오륙도 허리를 휘감고 비룡산 자락 동백꽃(杜鵑)에서 춘복(春服)의 맛과 향을 담아 승전하는 용이 되어 하늘에 날은 집터를 넘어간다.

무명 적삼에 어머니 젖 내음이 안개 되는 양지바른 곳 동백 따는 손길이 멈추고 동백새 보다 먼저 춘복을 따 허기진 배를 채운 그곳에 장신의 큰 포 4문을 설치하여 부산항을 방어진 곳이었다.

비룡계(龍臺) 서편자락 대봉산(大鳳山) 앞 파도가 하얀 포말을 품어내는 작은 바위를 고래 등이라 하여 고래가 놀고, 신선이 무재등 유하수(瀟灑水)로 목욕 축이

며 파도소리가 몽돌을 쭈아 보석으로 다듬어 봄 햇살에 빛이 넘치는 곳이 지척에 있다.

치어(鰈魚)들이 거미섬(鰲岩)을 고향삼아 어린 시절을 보내고 먼 바다 깊은 곳으로 떠나면 바다는 명경지수(明鏡止水)가 된다.

신(神)이 다듬어준 관문이요, 경제의 공간이 된 이곳 부산항을 안내하는 오륙도 하얀 등대 불빛을 뒤편에 살아 남해바다에 뿌려 길을 만든 공덕으로 2007년10월 1일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24호로 지정되었다.

용(龍)의 전설 용호동은 신선이 풍악을 다듬은 곳. 불로장생수(不老長生水)를 담은 수리병(호리병의 옛말)이 누워있는 섬을 수리섬 이라고 한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끝나고 부산진 지성(枝城)인 자성대(子成臺)에 전쟁을 끝낸 명(明)나라 장수 만세덕이 주둔하였다. 肅宗(숙종)35년 서기1709년 만세덕(萬世德)의 공을 기리는 만공단(萬公壇)과 자성비각(子成碑閣)을 세웠다.

그 후 일제강점기 만공단은 없어지고 매몰되었던 자성비는 오륙도 수리섬으로 옮겨졌다고 하여 비석(碑石)섬이라고 하였다. 용호동 주민은 자성비를 목격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으며 일본국이 자성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리 섬에는 배를 접안할 장소도 없는 곳에 굳이 달걀지 않은 비석을 운반하여 세설치 하였을까?

7월이면 원양제도 혼자 자지 않는 붉은 신의 붓처럼 아름다운 합환수(合歡樹)자귀나무(소철잡나무)가 피고, 벌 나비가 모여들어 가장 아름다운 섬 소ؤل섬(素山)은 장자등 포진지를 찾아 헤매는 미군이 1945년7월 소이탄(燒夷彈)을 투하하여 섬을 불태웠다. 홍콩스러운 바위섬으로 오랜 세월 버티다 1970년 경 바람이 실어줄 곁을의 세앗이 하나둘 자라 이름도 숲섬으로 개명하였다.

오륙도 앞 잠록계(승두말)에도 일제강점기 동서로 10cm급의 다양한 유탄포(메이지폭사포)4문을 설치하여 부산항방어용 포진지를 구